



첫회,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정도령의 사랑

신앙에 무지했던 나를 한 발 한 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시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와! 잘 한다 김일 박치기 최고다."라는 합성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흑백에다가 네 발 달린 TV를 갖고 있는 집이 우리 동네에 몇 집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그중에 우리집에 TV가 있었다. 그래서 레슬링이나 권투 경기가 있으면 우리 집 마루 앞에 꼬마, 어른 할 것 없이 TV앞에 앉고서 모여서 경기하는 선수들과 같이 흥분해서 싸운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 나오면 또 깔깔거리며 웃고 떠들었다.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선생을 하시려다가 경찰이 되셨다고 한다. 우리 집은 경찰가족들이 사는 사택인데 그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예능프로그램까지 모두 즐겨보았다. 승리제단 나오기 직전(대학 4학년 때)까지도 TV앞에 앉아있을 정도였다.

은주의 강권(強勸)으로 정도령님을 만나다

어느 일요일 날 남동생과 같이 서부영화를 보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나보다 1살 아래인 은주가 와서 나를 전도한답시고 옆에 앉아서 열심히 정도령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하였다. 은주의 부모님은 모두 전도관을 나오셨다고 한다. 눈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간간히 은주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귀 가상으로 스쳐 지나갔지만 정도령님께서 연단을 받을 때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 그것도 마지막에는 유리 위에서 하여 무릎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상하게 귀에 속 들어왔다. 은주는 구세주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항한 것을 기어이 해내신 분이리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였다.

당시 나는 부모님이 계시는 경남 의령을 떠나 마산으로 유학(?)을 와서 어느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다. 오빠 2명과 남동생 1명과 같이 살았는데 여자인 내가 밥을 해주어야 했고, 청소도 하고 학교에 다니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 지 정신없었다. 오빠나 동생이 조금 도와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 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말만찬은 주말에 집에서 가져온다지만 밥하는 것과 청소하는 것이 여간 바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간간히 하기도 했지만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했었다. 그만큼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지겨웠던 것이다.

정도령님을 만나니 이상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일시에 사라졌다

TV에서 서부영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은주가 정도령님께서 마산제단에 오실 오신다며 가지고 갔다. 가기 싫었지만 은주의 진지한 열골표정에서 꼭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읽혀졌다.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은주를 따라 정도령님 댁에 마산승리제단을 향했다. 제단에 들어서니 준비된 소리가 웅성거리는 데 박수 소리가 아주 보통이 아니었다. 은주가 나를 맨 앞에 앉히며 정도령님이 나오시면 눈을 바라보라고 강조하였다. 눈을 바라보아만 자신 속에 마귀가 죽는다는 것이다. 은주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 말을 하기 시작하여 예배장소에 앉힐 때까지 했기 때문에 정도령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예배인도를 하실 때 그분의 눈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다.

설교 말씀이 끝나자 은주는 나를 데리고 정도령님 사무실로 갔다. 책임 승사님께서 새 식구라고 소개를 하니 정도령님께서 웃으시며 "아가씨! 열심이나오세요"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니 조금 전까지 이상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편안해졌다. 참 이상한



무궁화 관현악단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김정애 승사

일이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음치와 박치기 변화되

그 후로 은주가 매일 데리러 와서 마음 약한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야만 했다. 비디오로 듣는 정도령님 설교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 듣기는 하였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영생의 확신은 오지 않았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았고, 병마(病魔)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해서 별로 마음을 와 닿는 그 무엇이 없었다. 그렇지만 제단 여정, 남침들이 대부분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이어서 말도 통하고, 나도 그때 대학 졸업을 며칠 앞둔 터라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해서 같이 합창도 하며 어울렸다.

사실 나는 음악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 성적이 제일 나빴다. 음치에다가 박치기까지인 지라 음악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이번만 아니라 부끄럼도 많이 타는 편이라 앞에서 노래는커녕 입도 병긋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

터 음악을 잘 못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싶은 바람은 있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주로 방학을 이용해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없을 때 약기 실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혼자서 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음악과 조금 친해질 수 있었다.

이런 내가 합창과 악단을 하게 된 동기는 정도령님께서 영생의 진리가 세계 만방에 퍼져 나가면 각 제단에 합창단과 관현악단이 있어야 된다면 남침, 여침들은 모두 합창과 관현악단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이다. 이 말씀에 따라 머리를 굴려보니 합창보다는 그레도 약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악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음악에 소질이 없고 음감(音感)도 없고 청음(聽音)도 부족하여 합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지금은 악단 지휘자님과 단원들의 배려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편이다. (나는 현재 무궁화 관현악단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노래도 진짜 못했는데 승리제단 와서 매일 박수치고 찬송을 하다 보니 소리 나는 길이 조금 뚫렸는지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몸이 된 것에 감사하고 있다.

이슬이 뽀얗게 내리는 것을 직접 보다

대학 졸업하는 날 정도령님께서 마산제단에 오신다고 하여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 것을 약속 있다고 하여 슬그머니 빠져나와 집에서 정도령님 오실 시간을 기다리다 제단에 갔다. 정도령님이 오셔서 예배를 보고 있는 중에 내가 중간쯤 앉았는데 앞에서 이슬이 막 쏟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내 앞까지는 오지 않아서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눈에 똑똑히 보였다. '야! 저것이 사진에서 본 이슬이라는 것이구나'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다음날 사람들에게 이슬을 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량이 될까봐 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지난 후에 이야기 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정도령님의 5대 공약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슬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가끔 저녁 예배를 볼 때 이슬 내리는 것을 잘 보시는(불교에서 도를 닦았다는) 집사님이 "어머 아가씨에게 이슬이 뽀얗게 얼마나 내리는지 몰라" 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왜 이제는 이슬이 내 눈에 안보이지'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정도령님께서 이슬을 보여주시려고 하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보는 것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도령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도령> 책을 읽자 나도 모르게 열정이 솟구쳐 나왔다

하루는 부산제단에 정도령님이 오신다고 하여 모두 부산으로 간 것을 모르고 마산제단에 갔다가 혼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아무도 없고 해서 큰 소리로 대답을 하며 예배를 보고나니 속이 후련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제단에

피아노가 있어서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우연히 벽을 봤는데 자유율법이라고 써 놓은 액자가 있었다. 그 속에 첫째 '정도령님을 초초로 바라보며 고도로 사모하라'라고 써어 있었다. 그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다. '정도령님을 초초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을 봤던 것이 많아서 공상(空想)이나 상상하기를 좋아했고 즐겼기 때문에 내 머릿에는 마귀가 꼭 차있는 터라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정도령님을 초초로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날 여정회장 언니에게 "정도령님을 초초로 바라보다가는 내 할 일을 못 하겠네요"라고 하니 "하하하하" 크게 웃으면서 "그대 맞아. 네 말이 맞아. 인간은 불가능해.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지"라고만 했다.

그렇게 조금씩 제단에 관심을 가질 때 누가 나에게 正道令(정도령)이라는 책을 건네줬다. "한 번 읽어봐"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얼마 지난 후 그날따라 책이 우연히 손에 잡혔다. 책을 펼치는데 첫 장부터 경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격암유록이라는 책에 예언된 내용과 한자(漢字)풀이해 놓은 것이 읽는 순간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내속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내가 처음 제단에 갔을 때 모 여정이 "인생추수조미단풍구비(人生秋收糟米端風驅飛) 조표풍지인공을십승(糟糠風之人 弓十勝)"이라고 한문으로 쓴 액자를 가져와서 제단에 선물하여 벽에 거는 것을 봤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정도령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알게 되었지만 책에서 보니 더욱 그 뜻이 확실해졌다. 며칠이 걸려서 책을 다 읽고 난 후 예배 보는 나의 몸과 마음가지이 달라졌다. 내 속에 이런 열정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했다. *

김정애 승사 / 보광패션

2016년 메시아절 행사

새해에는 이슬성신 은혜로 충만하시길...

부산제단 김원찬 전경희 승사의 우쿨렐라 오카리나 합주	깔끔한 멘트가 빛나는 안병전 사회자	이영자총재가 기념 꽃다발을 받고 있다	성악과 졸업 기념 독창을 한 조건우(우), 조건우와 김선애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중창도 했다	
무궁화합창단이 박인숙 반주자가 작곡한 곡을 메시아절을 맞이하여 발표하였다	섹소폰 연주실력을 뽐낸 박상구 승사	테마가 있는 노래로 심금을 울린 라준경 승사	메시아절 경축행사 피날레를 웅장한 연주로 마무리 한 무궁화관현악단	